第256回國會 (定期會) 文化觀光委員會會議錄 第 7 號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05年10月5日(水)

場 所 文化觀光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한글날 국경일 지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審査된案件

1. 한글날 국경일 지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 1

(11시43분 개의)

○위원장 이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국회 제7차 문화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한글날 국경일 지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위원장 이미경 의사일정 제1항 한글날 국경일 지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10월 5일인데 며칠 후면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저희가 한글날에 이 결의문을 채택하면 의미가 더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한글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내일부터는 지방에 내려가기 때문에 오늘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번 문화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 시에 이계진 위원님, 김재윤 위원님 등께서 제의하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셔서 양 간사 위원들 간에 협의한 결과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회 차원의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우상호 간사 나오셔서 한글날의 국경일 지정 촉구 결의문 주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호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말과 글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또 국민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하자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셔서 결의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국문과 출신으로서 기쁩니다.

취지를 다 아시니까 읽겠습니다.

"세종대왕의 한글창제는 우리나라가 한자 문화권에서 벗어나 독자적이고 창조적인 문화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민족문화사의 획기적인 위업이고 한글에 담겨 있는 자주정신, 창조정신, 위민정신, 진취정신은 우리 민족이 숱한 역사적 시련을 극복하고 세계 속의 한국으로 나아가게 하는 정신적 지주로서 역할을 해 왔다.

더구나 한글은 지구상의 그 어떤 문자보다 과학성·체계성이 탁월하여 정보화에 적합하며 유네스코가 수많은 문자들 가운데 훈민정음을 유일하게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할 정도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한글의 가치와 중요성을 고려하여 1949년에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였고 1982년에는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1990년에 공휴일을 정비하면서 한글날을 공휴일에서 제외하였고 그 후에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하자는 의견에 대해 경제여건의 어려움 및 경제계의 여론 등을 감안하여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는 등 한글창제일이 국가적 경축일로서의 의미와 한글이 가지는 민족의 기록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

이에 국회문화관광위원회는 한글을 창제·반포하신 세종대왕의 위업을 선양하고, 문화민족으로서 자긍심을 일깨우며, 한글의 우수한 과학성과 독창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려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인 한글의 가치를 드높이고자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이상입니다.

(결의문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글날의 국경일 지정 촉구 결의문을 위원회 차원에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李在五 委員 형식에서 제안자가 '문광위원회'로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문화관광위원장'으로 하는 것입니까?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예.

○위원장 이미경 이재웅 위원님!

○이재웅 위원 주문 2페이지에 "그러나 정부는"부터 마지막에 "그 후에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하자는 의견에 대해 경제여건의 어려움 및 경제계의 여론 등을 감안하여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는 등 한글창제일의 국가적 경축일로서의 의미와 한글이 가지는 민족의 기록문화유산으로서의"…… 우리말에서의 '의'는 일본식 조사입니다. 더구나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하자는 문장에 일본식 문장이, 일본식 글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장을 간단하게 끊어서 하더라도 '의'자를 다른 말로, 주격조사 혹은 목적격조사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미경 문장은 다시 정확하게 손을 보는 것으로 하고 전체적인 취지에 동의해 주시면 가결하고자 합니다.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윤 위원 의원님들의 보도자료, 질의서도 그렇고 국회의 각종 문서를 보면 우리말을 바로 쓰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질의과정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요. 국어기본법에도 국어책임관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도 아직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진 위원 이번에 법안을 냈습니다.

○김재윤 위원 그리고 국회에도 우리말을 바로 쓰고 우리의 각종 질의서나 문서 그리고 정책자료집에 우리 문장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우리말을 바로 쓰고 있는지, 이런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문광위원회에서 사무처에 제안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미경 알겠습니다.

○정청래 위원 저도 우리 문광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앞장서서 한 것에 대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보도자료 제 사진 뒷면 배경에 훈민정음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해냈다는 기분이 듭니다.

위원님들이 앞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는 것이 작년에 제가 국회운영위를 하면서 국회에 나와 있는 모든 용어들이 한자이고 실제로 우리글에 맞지 않는 일본식 표현이고 중국식 표현입니다. 어떤 데에 보면 띄어쓰기도 안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하자는 촉구 결의문을 냈으니까 우리 문광위원회만이라도 솔선수범해서 각종 문서라든가 용어라든가 이런 것을 될 수 있으면 한글날 지정 촉구 결의문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실수를 많이 하는데 각자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우리 위원회부터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이계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계진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특히 한글날의 국경일 재지정을 촉구하는 결의문까지 하도록 주선해 주셨고 오늘 이렇게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신 데 대해서 발의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기쁩니다.

우리가 쓰는 말이지만 우리말을 완벽하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학자들까지도 이론은 맞지만 실제는 틀리는데 그러나 우리말을 바르게 하기 위한 우리말에 대한 자긍심이나 소중함을 항상 느끼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결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국보 70호로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남대문을 제치고 앞으로 1호로 바꿔야 하는 작업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한글날을 국경일로 삼아서 국민들에게 한글의 소중함을 알게 하는 계기가 된 데 대해서 저는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재윤 위원께서 항상 관심을 갖고 비주얼 자료에도 항상 '한글날을 국경일로 합시다'라는 슬로건 내걸었는데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만드는 법에도 오류가 사실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어가 없는 문장이 있는가 하면 주어가 두 개씩 들어가 있는 법문이 있기도 하고 표현이 애매하거나 모호한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하나 법을 발의한 것이 한글전문위원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주할 수 있게 해서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완벽하고 아름답고

깔끔한 법을 만들어서 이제는 수준 높은 법을 만들자는 취지로 올렸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위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경 저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의미 있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덧붙이자면 '킹 세종 프라이즈'라는 상이 있습니다. 1989년에 유네스코에서 신설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문맹퇴치사업에 가장 공이 많은 개인이나 단체를 뽑아서 매년 시상하는 문맹퇴치 공로상입니다. 이렇게 국제기구가 왕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상은 세종대왕상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미 유네스코에서는 우리 한글의 과학성 그리고 창제했을 때의 취지 이런 것을 깊이 공감하고 말로써는 처음으로 유네스코지정문화재로 1997년에 채택했습니다. 그만큼 이미 해외에서는 우리 한글에 대해서 인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인터넷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오히려 한글의 중요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늘상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국어기본법을 우리 위원회가 통과시켰습니다. 매우 역사적인 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지적했듯이 그렇게 중요한 법이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거의 한 줄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국회가 정쟁하는, 싸움하는 모습만 크게 다루었지 이 법이 갖는 의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시했습니다. 우리가 개탄했고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덧붙이자면 세계문명사에는 수많은 문자가 생성되고 소멸돼 왔습니다. 언어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를 보면 특정 언어와 문자는 1억 명 이상이 사용해야 그 언어가 지속된다고 합니다. 사용자 수가 1억 명 이하가 되면 적절한 때에 가서 소멸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한글의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약 8000만 내지 1억 명 정도가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보존하고 가꾸어 나가지 않으면 또 언젠가는 우리 한글도 소멸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네스코 얘기를 했지만 한글의 우수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유일하게 탄생기록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한글입니다. 누가 언제 창제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유일한 글자입니다. 그리고 창제의 취지에 나와 있듯이 모든 백성들이 문화와 정보를 공유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매우 고귀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작원리가 매우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다 이런 것도 유네스코에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미국의 과학전문지 디스커버리지가 1994년 6월호에 한글의 독창성을 인정했고 또 언어연구학으로서는 세계 최고인 영국 옥스퍼드대학의 언어학대학에서 세계 모든 문자를 합리성, 과학성, 독창성 등의 기준으로 순위를 매겼는데 한글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글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한글날을 앞두고 국경일로 채택하자는 것에 그치지 말고 우리 위원회가 주무위원회인 만큼 위원님들이 그동안 보여 주신 열의를 모아서 우리나라의 모든 방송들이 우리 한글, 우리말을 가꾸는 데 앞장서 달라고 주문하고 또 방송국 안에 한글연구회 또 우리말연구회를 두어서 방송이 우리말 바로 사용하기, 우리말에 대한 교육에 앞장서 달라는 것을 끊임없이 주문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국어기본법에서 제안했던 모든 내용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도 우리 위원회의 일차적인 관심사로서 계속적으로 촉구해 나가겠다는 것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 위원(24인)

강혜숙	김재윤	김재홍	김충환
노웅래	민병두	박찬숙	박형준
손봉숙	심재철	안민석	우상호
윤원호	이경숙	이계진	이광철
이미경	이재오	이재웅	정병국
정종복	정청래	천영세	최구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전문위원	최민수